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기생충 검사 때

평소에 술과 민물회를 즐기던 黃淳性씨 (48세,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산 동래 전화국 노조지부장)는 건강관리협회를 통해 간디스토마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후 그는 신체의 이상을 느껴, 디스토마 검사 때 알게 된 건강관리협회를 다시 찾아 건강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알코올성 간기능장해를 발견한 그는 투병생활과 계속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알코올성
간 질환**



건강상태를 알고 있어야죠”

건첩을 알게 되어 건강 검사를 받은 黃淳性 씨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건강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신체의 어딘가에 이상을 느끼고 부라 부라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이다.

다행히 일시적인 현상이면 무관하겠지만, 진짜로 심각한 병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그동안의 생활이 후회되겠는가.

黃淳性씨의 경우는 이런 현대인의 생활에 뭔가 반성의 계기를 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생충검사를 계기로 건첩을 알게 되었다

黃씨가 建協을 알게 된 것은 디스토마검사를 받게 되었을 때이다.

『평생을 두고 감기 한번 앓은 적이 없어 건강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직업관계로 저녁마다 술잔을 기울이는 때가 많고, 또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 디스토마에 감염되지 않았나 걱정하기는 했었죠』

T.V.등을 통해 간디스토마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고 있었던 그는 그러나 그러한 생각만큼 실천을 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2년전쯤이었죠, 아마. 전화고장수리 관계로 우연히 건첩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기생충검사를 한다기에 그자리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회에서 기생충 검사 외에 혈압도 체크해 주는 등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말은 일외에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참 인상깊게 기억에 남더군요』

이것이 그가 견협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였다.

다른 검사는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디스토마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검사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었죠. 그때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디스토마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는 사실에 더 많은 자신감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후 그는 견협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있었다.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다시 견협을...

그가 다시 견협을 찾게 된 것은 지난3월 이었다고 한다.

『올해들어 예년과 달리 몸에 이상이 있는 것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자꾸 피로하고 몸이 나른해지고 얼굴에 기미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어딘가 크게 고장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큰 병원에게 봐야 하지 않나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곳이 바로 견협이었습니다. 2년 전의 좋은 인상이 기억나더군요.』

그는 바로 견협을 찾았다.

『별로 부담없는 검사수수료와 뭔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견협의 인상 때문에 편안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별로 부담없는
검사수수료와 뭔지
모르게 신뢰가 가
는 견협의 인상 때
문에 편안하게 검
사를 받았다는 黄
淳性씨





◀ “운동도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다는 막연한 자부심이 건강을 해쳤을지도...

그러면서도 황씨는 자신의 건강에 무슨 큰 이상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잔병 한번 앓아본 적도 없고 평소에 술을 마셨던 안마셨던 다음날 끄덕없이 새벽의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약수터를 오르곤 했죠. 그뿐입니까? 등산, 배구, 족구 등 운동을 즐기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읍니다.』라며 황씨는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데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건협 부산지부의 도움으로 시작한 투병생활

검사 결과는 그를 당황하게 했다.

『결과는 알코올성 간기능장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득해 지더군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간기능 이상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에 놓여진 현실을 극복해야 함을 생각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계를 느끼고 안타까와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게는 저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가족들도 있었구요.』

그는 모든 생활을 접어둔채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종합병원엘 가볼까도 생각해 봤고 주위의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병명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을 통한 투병 생활이라는 것을 알고는 일차적으로 건협 부산지부 관리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후 부산지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 패턴을 변화시켜갔습니다.』라고 투병생활을 시작하던 과정을 설명한다.

『우선 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고단백 위주로 식단을 짜고 시간 맞추어 약을 복용하구요.

물론 그렇게 좋아하던 술은 끊어야 했죠. 처음엔 견디기 힘들더니 지금은 오히려 편안해 졌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건강상태

黃씨는 지금은 그렇게 지나간 일처럼 말하지만 그 투병생활이 그렇게 쉬웠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아직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 건협이 모든 근로자들의 건강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황씨는 말한다.



현재 매달 건협 부산지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그저 단순히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적당히 운동을 즐기고 잘 짜여진 식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자신의 지금 이시간의 건강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인다.

그는 또 이러한 사실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와 했다.

강인한 결단력을 가진 黃淳性씨

黃淳性씨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산 동래 전화국 노조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한다.

또한 강인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 투병생활을 잘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도 말한다.

주위의 모든 사람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

黃씨는 『건협이 모든 근로자의 건강의 동지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다시 한번 건협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한 집사람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인다.

부인과 1남1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며온 좋은 아버지, 남편이기도 한 그는 『저희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제 노력을 쏟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기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시원한 부산 바다의 바람이 더운 여름을 식혀주고 있었다.

비릿한 생선내음을 한껏 들며 마시며 기자는 黃淳性씨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마희연 글)